

‘100년 숲길’ 나무 2만그루 심었다

광주시 2016년부터 조성 사업
영산강·황룡강 제방 28km
휴식공간·미세먼지 저감 효과



광주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100년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올해 조성한 첨단교~첨단대교 100년 숲길 구간.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100년 숲길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 제공, 도시열섬 예방,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이 기대된다.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는 “광주를 대표하는 수변생태축인 영산강과 황룡강 제방에 28.04km의 ‘광주 100년 숲길’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푸른도시사업소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광주 100년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광주시는 2015년 ‘광주 100년 숲길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영산강 승촌보-월산보 일대와 황룡강 선운지구 일대 28.04km 구간에 2만8400그루를 심었다.

특히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 등 의견을 들어 왕벚나무, 백합나무, 이팝나무 등 다양한 나무 종류를 선정했다. 올해엔 영산강변 우안 극락교-광산대교와 첨단교-첨단대교 등 총 5.6km 구간 하천 제방에 총 4793그루를 식재했다.

교와 첨단교-첨단대교 등 총 5.6km 구간 하천 제방에 총 4793그루를 식재했다.

100년 숲길은 하천 제방에 심은 나무가 자라면서 그늘과 바람길을 만드는 숲으로, 미래세대와 자연이 공존하는 휴식공간이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기환 푸른도시사업소 정원도시과장은 “광주 중심축의 수변공간에 기후변화 대응 씨앗이 될 수 있는 나무 심기를 마쳤다”며 “광주의 명품 숲길이 될 수 있도록 100년 숲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 중심축의 수변공간에 기후변화 대응 씨앗이 될 수 있는 나무 심기를 마쳤다”며 “광주의 명품 숲길이 될 수 있도록 100년 숲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역대급 규모

광주시 정주여건 개선·환경문화 사업 등 17건 109억원 투입

광주시가 내년에는 역대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109억원(국비 9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9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사업 8개와 환경문화(공모)사업 7개 국도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달 국회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 펼친 결과 2개 사업,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올해 관련 국비 61억원보다 58%나 증가한 것으로, 각종 주민지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편익사업인 도로 확·포장 등 8건, 저수지보수·보강 1건, 복지증진 1건, 환경문화(공모)사업인 누리길 4건, 여가복지 2건, 경관 1건 등이다.

특히 환경문화사업이 7건이나 선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물론 지역민을 위한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이 예정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에 2001년부터 총 211개 사업에 917억원(국비 733, 지방비 184)을 들여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농·배수로, 소화전 등을 정비했고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여가복지·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김재식 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역주민의 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비 확보에 더욱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1월 17일 267.66㎢가 최초 지정된 이후 일부 해제됐으며, 현재 244.38㎢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에서 454가 구 886명이 거주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도시가스 해제수수료 이달부터 폐지

공급 규정 개정...수요자 편의 증대

광주시는 “이달부터 수요자가 도시가스 계량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수수료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중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 신청부터 가스 공급까지 제반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공급규정에 따라 수요자가 도시가스 공급 신청 시 가스안전에 문제가 없고 사유재산(타인 토지)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가능 시기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가스계량기 설치 시에도 가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계량기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인입배관 공사 시 수요자가 시공사를 선정해 복잡한 공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가스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의 공사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도시가스 공급 중지 후 재사용 시 부과하는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 시 누출량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도 마련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 요금감면 대상 대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규정에 도시가스 공급 전 가스시설 점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오동교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공급규정 개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수완지구·평동산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광주시는 “수완지구 성탁·고래실 공원과 평동산단 평동역 일대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사업에 선정됐다. 지정 지역은 현행 법규보다 완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탄력을 받고 다양한 특수목적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 스마트물류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무인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도 신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빛그린산단, 본촌산단, 첨단산단 등으로 시범운행 지구를 확대해 다양한 특수목적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 부문을 선도해 지역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파트 투명페트병

25일부터 분리배출

광주시 시민들 참여 홍보

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유색 페트병 등과 섞이는 바람에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지난 9월부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해왔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행구기 ▲라벨 떼기 ▲찌그러뜨리기 ▲전용 수거함 배출 순으로 처리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시장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게 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사랑의 집 고쳐주기’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연말 사회공헌활동으로 주거 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정 시의원이 함께 했으며, 독거노인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구 자산동 1곳, 산수동 2곳 등 주택 3곳의 내·외부를 수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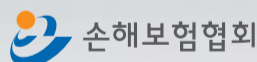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서비스 개시

광주시, 등·하원 시 안심문자 발송

광주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한 등원과 귀가를 위해 2021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출결관리와 등원 및 하원 시 보호자에게 실시간 안심알림문자를 발송하

는 서비스다. 광주시는 서비스를 위해 지난 11월 관내 모든 지역아동센터(기분은영미 미지원 시설 포함 총 305곳)에 안심알림시스템 이용 장비를 구축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시범 시행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하원 안심알림서비스 이용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